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진청, 2015년부터 29개 협력단 운영

농가 소득 14.7%로 올라 만족도 89.3점

산·학·연 협력단이 추진한 협력 사업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돼 참여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역전략작목 발굴·육성을 위해 구성된 농산업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산·학·연)협력단이 다양한 우수사례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광역화사업(이하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보급, 품종선발, 판로개척 등 맞춤형 종합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조직 활성화와 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추진한 산·학·연 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평균 소득은 14.7% 증대됐고, 참여 농가의 만족도는 89.3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여건과 작목별 특성 등을 반영해 ▲특화사업단 ▲융·복합사업단 ▲광역사업단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9개 지역에서 29개 산·학·연 협력단(이하 협력단)을 운영했다.

특화사업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기술상담(기술컨

설팅)을 하고자 구성했으며, 10개 작목(화훼, 양재류, 고추, 고구마, 딸기, 버섯, 수박, 쌀, 감귤, 귀이)을 중심으로 13개의 협력단이 운영됐다.

융·복합사업단은 지역 작목을 활용한 가공·채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8개 작목(쌀, 산채, 포도·와인, 토마토, 허브, 오리, 잡곡, 곤충)을 중심으로 8개의 협력단이 운영됐다.

광역사업단은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지역이 협력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위해 구성했으며 3개 작목(인삼, 사과, 한우)을 중심으로 8개의 산학연협력단이 운영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6년간 운영해 온 산·학·연 협력 광역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광역화사업 우수성과 사례집'을 발간했다. 각 산학연 협력단의 사업추진 배경, 주요성과 및 효과, 활동실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우수성과 사례는 추후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산·학·연 협력 사업의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농업발전을 견인하고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2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대동공업(주), LS엘트론(주), 동양물산기업(주),국제종합기계(주)와 기술 교류와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노지 디지털 농업 등 첨단 농기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용자금 신청을"

전북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에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용자사업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점영업, 위탁운영 집단급

식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HACCP시설과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 개선에 활용된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

소, 기 용자받은 업소로 상환을 미완료한 업소는 제외된다. 용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억 2,000만원, 식품점영업은 7,0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용자를 받고자 한다면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용자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유호상 기자

생진원, 우수기술 이전협약 체결

농식품부 한우수출연구사업단 6건 등 총 9건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한우수출연구사업단(6건)과 맞춤형 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제 기술개발사업(1건), 그리고 생진원에서 자체 개발(2건)한 우수기술 9건의 기술이전 협약식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생진원의 꾸준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6건 ▲쌈소제 및 의 제조방법(주식회사 비에이치앤바이오), ▲한우고기 수출 비선호육을 활용한 HMR 제품 제조방법(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더원푸드), ▲플라즈마 방전기술을 이용한 한우 위생 안전성 향상 처리방법(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산지육가공공장, ㈜대우그린푸드, 태화랩그린푸드,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맞춤형 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제 기술개발사업 연구 성



과물 1건 ▲흑하랑 상추의 메디푸드 제품개발 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추출 방법(휴마부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생진원 자체 개발 기술 2건 ▲치즈떡갈비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한 치즈떡갈비 성형기의 현장적용 방법(농부의말), ▲칼로리-컷 라이스 제조방법((주)지리산쌀 농업회사법인)이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단장 이승제)은 한우 수출 협력기업체가 해당 우수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한우고기 가공장의 위생안전성 향상과 한우고기 HMR 제품개발을 통해 한우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키운다

새만금개발청, 개발공사·요트협회와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2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대한요트협회(회장 유준상)와 새만금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의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트마리나 등의 시설도입과 해양레저산업 투자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만금지역은 외적으로 드넓은 서해가 펼쳐져 있고, 내측에는 거대한 호수를 품고 있어 해양레저 스포츠 도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최근 해양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와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수준높은 시설들을 도입해 개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하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기 때문에 요트 정박지 설치 및 해양레저시설

도입이 용이하고, 넓은 정온수역을 확보하고 있어 수상레저 활동에도 적합하다.

특히 수변도시에 들어서는 호텔·리조트 등의 숙박·관광시설과 해양레저를 연계하고, 새만금 주변지역으로 향로를 확장하는 등 해양관광과 수상레포츠 수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공사, 요트협회와 변화하는 관광레저산업의 수요에 맞춘 상호협력하는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새만금이 서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새만금에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언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축복장 받다

한국신협, 창립 60주년 맞아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기여 천주교 교구청에 성금도 전달

한국신협이 올해 신협운동 60주년을 맞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축복장을 받는 경사(慶事)를 맞이했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2일 천주교 부산교구청에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로마 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복장을 받는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복장 수여식은 지난 7월 신협중앙회 관내 천주교 대전교구청 백현 바오로 신부(대전가톨릭평화방송 사장)의 추천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신협은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신협 발상지인 부산에서 진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복장은 1,300만 신협 이용자와 임직원을 대표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받았으며, 손삼석 요셉 천주교 부산교구청 주교가 직접 전달했다.

한국신협이 축복장을 받게 된 데는 지난 60년간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며, 7대 포용금융을 비롯해 서민과 소외계층 같은 세상의 약자를 돕고 금융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축복장을 추천한 대전교구청 백현 바오로 신부는 "초창기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한 한국신협운동은 지난 60년간 한결같이 서민의 경제동반자이자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려 기여해왔다"며 "특히 신협이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마땅히 널리 알려야 한다"며 추천 사유를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축복장 수상에 대해 "60년 전 신협운동의 선구자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님과 장대익 신부님으로부터 비롯된 신협운동이 지난 60년간 숭고한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 어느 한 사람도 소



22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1300만 신협 이용자와 임직원을 대표해 천주교 부산교구청 손삼석 요셉 주교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 축복장을 받고 있다.

외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실천해 왔다"며 "개인의 영예가 아닌 초창기 신협 선구자들의 희생과 사랑, 1300만 조합원과 이용자들의 참여, 1만 5여 임직원들의 헌신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큰 찬사이자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축복장 수상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신협의 정신을 더욱 되살려 교황님 이전해온 메시지와 더불어 서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국신협은 1960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 협동조합운동으로 시작해 빈곤과 절망에 빠져있던 서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약자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금융 안정 지원과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한 한국신협운동은 지난 60년간 한결같이 서민의 경제동반자이자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려 기여해왔다"며 "특히 신협이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은 마땅히 널리 알려야 한다"며 추천 사유를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축복장 수상에 대해 "60년 전 신협운동의 선구자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님과 장대익 신부님으로부터 비롯된 신협운동이 지난 60년간 숭고한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 어느 한 사람도 소

동조합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대표적 실증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60년 조합원 27명, 출자금 3천400원(약 10만원)으로 출발한 한국신협은 현재 전국 881개 조합(1,662지점), 자산 108조원, 이용자 1,300만명의 규모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어 세계 4위, 아시아 1위의 모범적인 글로벌 금융협동조합의 위상을 가지게 됐으며,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회장국이자 아시아에 유일한 세계신협협의회(WOCCU) 이사국이기도 한다.

한편, 이날 축복장 수여식에 앞서 신협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 가톨릭센터 소재 신협발상지 기념비를 찾아 현화식도 진행했다. 현화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신협 선구자 추모위원회 추승학 위원장(부산행복신협 이사장)등 10여명이 참석해 한국에 최초로 신협운동을 소개한 미국인故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를 비롯한 한국신협운동의 선구자들에 대한 추모를 통해 신협운동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는 한국신협의 태동과 신협 발상지 보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천주교 부산교구청에 감사의 마음으로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6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 우수제품 판로 개척

전북중기청, 23·28일

국내외 MD 통합상담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경제중소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전북경진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23일과 28일 양일간 대면·비대면에서 2020년 국내외 MD통합상담회를 개최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가 지속되자 위기에 직면한 지역 기업의 판로 다각화를 지원코자 전북중기청과 전북경진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마련한 행사로써, '1차 국내외 통합상담회(23일)'는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2차 국내 판로 총망라상담회(28일)'는 대면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우선 1차 상담회는 롯데백화점·김스클럽 등 국내 대형유통망 MD 및 중국 바이어 등 총 19명을 초청해 60여 개사와 매칭 후, 기업의 대면상담 요청을 반영해 국내 MD와는 대면으로, 중국 바이어와는 화상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차 상담회는 '국내 판로 총망라 서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형유통망·식품유통공사 MD 및 중견 벤더 등 총 16명을 초청, 40개사와의 현장 상담을 통해 국내 판로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행사의 특이점은 양 기관이 모집한 행사에 국내 MD·국외 바이어와 교차 상담을 지원하고, 대형유통망 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MD, 다판다·한돌코리아 등 중견 벤더까지 초청해 총력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나눔축산운동 일환

소비자 초청 축산현장 체험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22일 소비자를 초청해 축산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축산 현장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한 나눔축산운동 행사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여성 자원활동센터 회원 30명을 초청해 임실축협 자원화센터, 삼읍질사료공장, EM공장, 가축시장 등 축산 현장을 견학하고, 임실치즈농협에서는 치즈, 요구르트 등 나눔제품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임실치즈마을에서는 치즈 피자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김윤상 기자

지리산 낙농조합, 태풍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복구 지원 나서

전북지리산낙농조합(조합장 이안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피해 농가 및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축산(젖소)농가의 피해를 복구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조합은 경북대구낙농농협의 노동생산 지원금의 영농자재 지원을 위한 2천만원을 포함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합 내부 의결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축산자재(투박 183톤가량 지원)를 지난 12일부터 전북지리산낙농농협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자봉센터와

지역사회 공헌 협약 체결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장경민)와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삼순)는 22일 순창군 지역발전과 자원봉사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밀밭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협 순창군지부는 홀몸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밀밭찬나눔 기부금 100만원을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 전달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밀밭찬을 홀몸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